다시 태어나야 할 겨레의 글

최 상 진
〈문리대 교수 국문학〉

겨레말이 창제된 지 5백년 이상이 지났다. 현재 한국인의 언어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본보에서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언어사회학적 입장과 문학작품내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특히 언어활동중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구분을 고려하여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 작가와 독자의 문학적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글이 올곧은 겨레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한 원 균
〈국문학 박사과정 문학평론가〉

화자와 청자, 언어사회학적 측면

말의 오용 도덕적 천민사회 불러
존비법 구조적 특징으로 인정해야

담포전 평소 친분이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모 언론사가 수습기자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인원이 십수명 넘칠하였지만 수천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1차로 50명 가량의 합격자를 냈다. 합격자들은 영어 토익점수가 모두 9백점을 넘는 수재들이었고, 그 중 몇명은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토익 점수가 만점이라면 영어 독해·작문·회화 능력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과 거의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점을 받은 합격자들은 2차 시험—우리말로 논문을 쓰는 시험—에서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영어는 잘 했지만 우리말이 서툴러 불합격되었던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어느 학문 영역에 구분없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영어에 능숙치 못하면 원하는 직장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한다. 이런 추세는 세계화·국제화·무한경쟁이라는 말이 들리고서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이토록 훌륭한 우리말을 지니게 되었건만 고대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한자문화권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19세기 초 우리말 우리 겨레에 대한 자각이 일기 시작하자마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우리말조차 빼앗기더니 해방이후 결국 또 영어문화권에 종속되고 말았다. 최근 모 무역회사에서 미국인들이 50년대에 입던 쓰레기 옷들을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땅에서는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최첨단 유행이라고 한다. 한심하다 못해 이미 우리민족 정신사고의 종말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말이 함아리라면,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 문화와 우리 정신이다. 담긴 것이 없는 빈항아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언어적 천민사회는 곧 정신적 천민사회가 되고, 정신적 천민사회는 도덕적 천민사회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은 요즈음 일련의 패륜적 사건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말을 혀꼬리는 영어식 발음으로 노래 부르는 소년가수들, '여자보다 예쁜 것이 아내이다' '침대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의미상 무리한 광고표현들, '다모', '발모이'등 국적없는 상표어휘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우리네 안방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다. 우리말에 없는 어휘를 외래어에서 차용해 쓸 수 있다. 남용만 하지 않는다면 언어정화상 필요하다. 그러나 엄연한 우리말 우리글을 단지 흥미를 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써버린다면 그들은 곧 우리말을 타락시키는 장본인들이다.

최근 미국의 모 신문에서 우리말·우리 문자에 대한 찬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비슷한 때 국내에서는 또 언어학자가 우리말 존대법은 앞으로 없앨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우리말 준비법은 계급의식이 철두철미했던 봉건사회의 잔재로 평등사회와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없애야 하며, 우리말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번거러운 준비체계를 점차 없애야 한다는 논지였다.

우리말은 관계의 언어이다. 화자와 청자의 사회학적 위상관계 속에서 화맥이 결정된다. 우리의 호흡은 서술체형 문장보다 대화체형 문장에 더 이끌린다. 서술체 문체보다 대화체 문체로 창작되어진 소설들이 잘 팔리는 것도 바로 여런 연유에서 이다. 세계에는 3천여종의 언어들이 존재하지만 언어구조 속에 사회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는 오직 우리말 밖에 없다. 이것을 언어구조상의 단점으로 보는 시각은 어불성설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로 평등해 질 수 없으며 민주화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 언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포기는 우리말의 포기이고, 우리 정신의 포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는 불어전용법을 만들어 놓고, 회의나 세미나 등 공식석상에서 영어 등 외래어를 사용하면 처벌을 하고 있다. 캐나다도 불어권의 한 주가 곧 독립을 선언하리라는 소식이 들린다. 스위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여론이 있다 한다. 세계 곳곳에서 언어민족주의의 기운이 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작가와 독자, 문학적 측면

90년대 언어, 욕망과 무의식의 외화수단
작가의 언어사유화 경향 지양해야

언어가 자체내의 체계를 갖는다는 것이 통사구조의 규칙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적 생산양식과 사유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 역시 언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의 언어는 동시대적 삶의 다양성을 약호화한다. 이때 기호란 의식구조의 저변에서 문화를 생산하는 지식의 하부구조로 작용한다. 작가란, 언어가 갖는 생산성, 즉 삶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의 교류를 통해 삶의 현재성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역할에 가장 예민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지난 80년대는 문학을 민족문화의 특수한 반영물로 인식하여 '민족문화의 언어화'를 강하게 의식하던 시대였다. 정치적인 역압을 견디는 과정에서 창출된 언어는 원심적인 성격을 갖는다. 담론의 지배와 질서, 일원적 사고를 강요하는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있는 다양한 삶의 형식을 환기시키고, 세계를 살감의 차원에서 구성하려는 의도는 엄격하고 규칙화된 언어사용을 거부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런데 90년대의 문학은 문화를 보는 관점의 변화를 그 방법의 새로움에서 추구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언어가 더이상 중심담론을 재생산하는 '체계'로 경직되지 않고 사유의 개방성, 혹은 욕망과 무의식의 외화(外化)수단이라는 것, 언어의 사유화를 통한 세계인식이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는 듯하다. 하지만 정치와 삶에 대한 변화된 관점이 퇴행적인 문화를 대량생산하고 있다는 혐의도 떨쳐버릴 수 없다. 특히 소설에서 구사되고 있는 언어가, 언어 자체의 성찰적 기능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은 곤혹스럽다. 최근 상업주의 출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소설읽기가 흥미를 증폭시키는 오락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상을 쉽게묵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90년대 들어서 우리사회에 미만해가는 정치적 무관심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될 법하다. 그러나 문제는, 소설을 '이야기'중심으로 읽는 태도 속에 내포된 위험이다. 문학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인 물음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소설읽기는 일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학교육적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의 문제는, 작품을 지나치게 주제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작품의 언어와 수용자 개인이 경험한 언어를 조율하고 이해의 다양성을 심화시킬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난 수 십년간, 문학이 정치적인 담론에 업매여서 문화를 철학적 관점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이 경직되어서 의사소통적 토론문화가 부재하며 상대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성숙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문학교육이 문제를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깊이있는 사유가 언어를 선택하게 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유를 창출한다. 따라서 언어는 방법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문학행위(쓰기—읽기)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문화적으로 심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회적인 유희에 그칠 것이다. 작품도, 그것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른 상품과 다를 것이 없어서 결국 읽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문화적 퇴행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문학은 단순히 소비의 구조안에 머무는 의식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한계를 넘어서 세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유기적 단위로 존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새로 나온책

'현대 자본주의 …'

크리스하먼 외 지음

국제화와 민족주의 관계 설명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로 나가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와 민족의 관계에 관해 다룬 책이 나왔다.

저자인 나이젤파 해리스의 상반된 견해, 이에 대한 하먼의 정리로 구성된 '현대자본주의와 민족문제'란 책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국제화가 민족국가의 의미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견해와 이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 두 견해를 발전적으로 전개한 하먼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장에서 하먼은 1백50년이상 지속된 민족주의를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언급하고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민족문제에 관해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갈무리/6천원

학술단신

민주언론 운동 협의회 제11기 언론학교 개최

민주언론운동협의회(회장 정동익)는 오는 25일부터 12월3일까지 '제11기 언론학교'를 연다.

매주 화·목요일 2회의 강의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마포구 연남동에 소재한 언협교육관에서 개최된다.

민언협은 지난 91년 11월 1기 개강이후 현재 약 3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언론학회를 졸업한 사람은 각계 언론 관계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접수는 24일까지.

수강료 6만원.

세시봉

박경화 취재부장

그대, 개혁을 꿈꾸는가

김영삼 정부가 다시 한번 사정한파를 몰고 오려 하고 있다. 최근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공직자의 자정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대통령의 제2사정발표가 다분히 국민불안감 무마용이 아닐까 라는 평도 있지만 여하튼 다시 정비되는 국가 기강 확립에 대한 바램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한결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취임 3년째를 보내고 있는 김대통령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2차 사정은 그가 취임 당시 온 나라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이고 다시 시도되는 것이니 만큼 국민들이 단순히 관심을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기대를 포함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직자 재산공개로 시작된 개혁사정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갈채를 보냈었다. 대통령 자신이 재산을 공개했고 기존에 수차례에 걸쳐 시행시키를 두고 논란을 거듭했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굵직한 사안에서부터 감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들추어지는 각종 비리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에 안도하고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의 여파로 여러 문제점들도 파생되었다. 위에서부터 불어닥친 개혁으로 하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한차례 뉴스거리가 되었고 혹자는 며칠전 발생했던 장교탈영사건의 원인도 그 부작용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군이 정부의 무차별한 사정대상이 되면서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말할 수 없는 기강해이를 겪게 된 결과로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요컨데 개혁은 이루어지되 대통령만의 개혁이어서는 안된다. 또 그럴리 없겠지만 고조된 국민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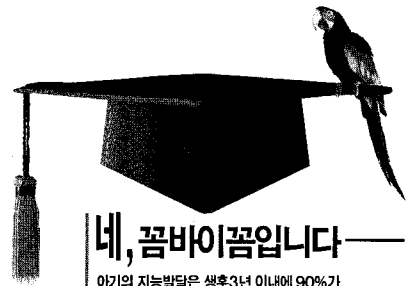
사정의 선봉에 나선 이시윤 감사원장은 현시기를 폭풍노도가 지난 안정기에 맞게 대응하는 사정의 시기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1차사정의 시기를 화려해 보이는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시기였다면 현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분야에 대한 민생사정의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고 나름대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차 사정에 권력형 상부비리자들이 모두 단죄됐던 것도 아니고 2차 사정에서도 하위직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비리의 잔당이 모두 일소되지도 않을 것이다.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골 깊었던 부정부패의 관행이 몇차례의 사정이나 감사로 모두 일소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임기내에 취임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한국건설을 이룰 수 없다. 다만 민생을 중시하는 민주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고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야만 한다.

지금 많은 강력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을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사정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다. 책임자에 대한 엄단을 내리고 많은 청백리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많은 이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한나이패션

"색깔하면 생각나는 유아복?"



네, 꼼바이꼼입니다—

아기의 지능발달은 생후3년 이내에 90%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것 즉, 지능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능발달 시간표

시 기	지능발달 상황	시 기	지능발달 상황
출 생 시	지능발달 성인의 25%	생후1년	지능발달 성인의 70%
생후6개월	지능발달 성인의 50%	생후3년	지능발달 성인의 90%

아기의 두뇌는 많이 쓸수록 빨리 발달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이 두뇌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으로 보는것이 귀로 듣는것보다 580 배나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아기의 지능발달을 위해서는 좋은것, 좋은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바이꼼은 아기의 지능발달을 생각합니다.

꼼바이꼼은 아기에게 좋은 색깔, 즉 밝고 깨끗한 색깔만을 사용하여 아기의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므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꼼바이꼼

꼼바이꼼 색깔은 교육입니다.